

세 가지 고백

Three Confessions

눅 5:8; 마 16:16; 요 21:16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7월 7일 설교

눅 5:8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 16:16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 21:16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교인 대표 베드로

예수님의 열두 사도 가운데 대표가 누구니까? 당연히 베드로지요. 성경에 베드로가 대표다 하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당신의 권세로 “네가 수제자다” 하고 임명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 베드로를 뽑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대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신 한 가지만 보아도 확실합니다.

혹시 반장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대표가 되면 다른 사람은 못 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반장은 수업 시작할 때마다 일어서서 “차렷! 경례!” 하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온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나를 대표해 달라고 내가 투표해 뽑았는데 일단 뽑아놓고 나니까 얼마나 높아지는지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 알량한 국회의원도 선거 때는 굽실거리면서 “한 표 줘쇼” 하지만 일단 당선되면 굽었던 허리를 바로잡는다고 그러는지 배가 출산직전입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로 자처하는 교황도 비슷하지요. 이번에 뽑힌 교황은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만 그 앞 교황까지만 해도 온갖 특혜도 누리고 방탄차까지 타면서 굉장했습니다.

베드로는 대표답게 남들은 못해 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말고 물 위로 걸어가 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하지요. 야고보, 요한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 곁에 늘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높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도 보았습니다. 신앙고백을 잘 해 예수께서 베드로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신 뒤에는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일으켰는데 태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도 열두 사도의 대표답게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했는데 감히 주님처럼 죽을 수는 없다 해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은혜와 그 결과

그런데 그게 다라면 베드로도 그냥 우리보다 높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런 대표였겠지요. 우리하고 비슷하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대화도 안 되는 그런 대표였을 겁니다. 그런 대표라면 진짜 대표는 못 되겠지요. 대표라면 같아야 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인류를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담이 망쳐놓은 걸 바로잡으러 오실 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진짜 대표가 되려면 같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진짜 대표 맞습니다. 우리하고 참 닮았기 때문에 주님이 임명하셨어도 베드로를 고르셨을 거고, 우리가 투표로 선출을 해도 당연히 베드로가 당선될 겁니다.

지난 주일 베드로의 천방지축 실수연발의 생애를 살필 때 가장 돋보인 게 뭐였습니까? “무궁한 주의 은혜”지요. 실수가 많았던 만큼 주님의 은혜도 컸습니다. 우리도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어 주님 은혜가 참으로 큰데 베드로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로 “딱”입니다. 그냥 주시는 게 은혜지요. 베드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이 왜 주셨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공짜로 주시는 게 은혜지만 은혜 자체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싸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짜인데 비지떡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본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그대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았습시다. 처음에는 그게 은혜인지도 몰랐습시다. 그냥 뭔가 달라졌다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서 마지막에는 정말 대표가 되고도 남을 정도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시다.

그런 베드로의 변화를 잘 확인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를 만나면서 세 번의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세 번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대표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그것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죄를 깨달음

베드로가 한 첫 번째 고백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언제 한 고백입니까? 배 두 척을 가득 채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한 고백입니다.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을 쳤는데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그물도 다 씻은 판인데 웬지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극적인 상황이지요. 밤을 새우고도 허탕을 쳤는데 단 한 번 던진 그물로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잡아본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겁니다. 보통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수도 없이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뒤에도 배 한 척을 가득 채우는 날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 던진 그물로 배 두 척을 가득 채웠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차이일 뿐입니다. 평소 열 마리 잡았는데 이번에는 일백 마리 잡았는지 모르지요. 평소에 그물을 수십 번 수백 번 던졌다면 이번에는 그냥 한 번 던져 왕창 잡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처럼 인력거꾼이 갑자기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게 마련이지요. 예수라는 분에게 배 한 번 빌려 드렸다가 샴을 톡톡히 받았습시다.

모두들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맙다는 인사도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지금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갑자기 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면 분명 하나님한테서 오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더러운 죄인 아닙니까?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 내 더러움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바로 예수께서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원문의 순서를 보면 베드로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올시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겁낼 것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잡을 것이다.”

가난한 심령

은혜지요. 용서의 은혜입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일도 맡기십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잡을 것이다.” 베드로 직업이 어부다 보니 고기 잡는 일에 비겨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생명으로 전도하는 일을 이제 베드로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사실 주님이 용서를 선포하시기 전에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엄청난 고기를 잡고 제 죄를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차이라 해야 양적인 차이일 뿐인데, 평소 잡던 고기보다 월등히 많은 고기를 평소 잡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잡았을 뿐인데, 베드로는 그 양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질적인 차이를 보았습니다. 표적을 본 거지요? 주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되구나,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니.” 베드로는 가난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죄 용서의 말씀은 그저 그 은혜를 확인해 주시는 말씀일 뿐입니다.

이 첫 고백을 함으로써 베드로는 우리 대표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똑같이 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착한 사람, 뛰어난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주 예수의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 용서의 은혜도 함께 받습니다. 주님이 목욕을 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히 9:14). 그런 뒤에도 살면서 더러워진 발을 수시로 또 씻겨 주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죄를 깨닫고 씻음 받은 사람들이 모여 오늘도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사는 곳입니다.

2) 진리를 깨달음

베드로가 한 두 번째 고백은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았던 첫 번째 고백에서 이제는 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그런 고백으로 달라졌습니다. 발전입니다. 처음에는 제 죄가 두렵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은혜가 고마웠는데 그 이후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 분이 누굴까? 나를 제자로 삼으신 이 분은 어떤 분일까? 나도 성경은 좀 압니다. 그런데 이 분을 따르면서 보니까 이 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 분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뿐 아니라 이 분을 믿는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내용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짜임새도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직접 듣고 성경도 배우고 한 그게 그대로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별명이 있지요? 물고기 고백이라 합니다. 그리스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다섯 낱말의 첫 글자를 따 모으면 익두스 곧 물고기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기독교인들끼리 이 물고기 무늬를 신호로 서로 은밀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자동차 뒤에 물고기 표시 달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 걸 달고서도 운전은 형편없이 하는 걸 보면 무슨 부적 같은 걸로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권고합니다 (히 6:1-2).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보입니다. 초보인 만큼 이게 없으면 물론 엉터리지요. 하지만 이 첫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짐과 동시에 힘찬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갖추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주 예수의 구원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우다 보면 우리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고 인간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우리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도 알게 됩니다. 구원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마지막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부지런히 배우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는데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구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신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약도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의 내용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내 믿음이라고 남의 믿음하고 다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물고기 고백입니다. 똑같은 그 내용을 내 믿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고백이라야 됩니다.

미썬미다 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내 욕심을 잔뜩 늘어놓고 미썬미다 백날 해도 그건 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올바른 내용이 있습니다. 바른 내용을 바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내용이 엉터리면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결국은 멸망으로 가고 만다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딤후 3:7-9). 바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바른 내용이 됩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셨고 또 나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 말고도 많습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내 믿음의 내용으로 만들어야 내 인격과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내용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주로 설교도 그렇습시다. 전에 우리도 조금 했습시다만 옛날 교인들은 요리문답 같은 걸 많이 배웠습시다. 교리공부지요. 요즘 누가 그런 것 합니까? 안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없어졌습시다. 그냥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같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게 다라면 하나님이 그냥 전도지 한 장 던져 주시지 이 두꺼운 성경은 왜 주셨겠습니까? 예수에 대해 배우고, 그렇게 배운 걸 내 믿음으로 만들 때 그 믿음 안에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인격이 자라게 됩니다. 전에는 죄만 짓던 몸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부지런히 읽고 외고 공부할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 바른 고백, 바른 내용, 바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섭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배웁니다.

3) 사랑을 고백함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이니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아할 것 같지요? 언뜻 봐서는 안 그렇습시다. 참 어색하고 베드로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쑥스럽기 짝이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런 쑥스러움이 사실 가장 베드로답고 또 우리 대표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습시다. 이 사랑의 고백에는 베드로의 겸손이 있고 베드로의 사랑의 헌신도 담겼습시다. 처음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시고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무궁한 주의 은혜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안 물으셨으면 베드로 제가 나서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하진 못했을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누군지도 모른다 해 놓고 이제 와 사랑한다? 아무리 변덕이 심한 베드로라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뼈아픈 잘못을 그대로 깨닫도록, 그래서 씩스러움을 다 씻을 수 있도록,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헌신과 자기희생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느냐 물으셔도 민망한데 아가페라니요?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사랑이라 하시니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되겠는데 “남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그 부분은 아예 대답을 안 합니다. 언급 안 한 그게 사실 대답이지요. 그리고는 일단 “예, 주님”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사랑합니다” 못 하고 “주님이 아시지요” 해 놓고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요” 하고 말합니다. 직접화법이 아니고 간접화법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고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사랑한다 하고 늘 쓰는 그 말을 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은 비슷한 질문을 두 번 더 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주님의 양을 돌보라는 명령을 되풀이하십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셨는데 그 사명을 그대로 확인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곧 하늘로 가실 거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교회를 맡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로 새 시대를 책임질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참 어려운 고백

사랑을 고백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송창식 노래처럼 선불리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꼭 딱지를 맞을까봐 겁이 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에는 언제나 내 모든 게 담겨야 되는 까닭입니다. 남녀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주님께 뭔가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받기만 했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것도 주님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까닭 모를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뜻이 사실 이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계명이니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야 쉽지요.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배우다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를 사랑하는 이걸 참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건데 마음을 다한다는 건 내 모든 걸 다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시간도 물질도 몸도 하여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사람도 아닌 하나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 하기 어려운 게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좀 쉬을까요? 요즘 세상에서는 쉽겠지요. 제가 볼 때 요즘은 사랑이 많이 싸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싸구려가 됐습니다. 너무 쉬워요. 요즘은 고백이라는 것도 많이들 합니다. 처음 만나 “사랑해” 합니다. 마음 속에 어떤 느낌이 있으니 그런 말도 하겠지요. 옛날처럼 씩스러워할 필요 없이 요즘은 솔직하게 그냥 말해 버립니다. 솔직한 건 좋은데 순간의 감정,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생각과 판단을 담지도 않고, 그래서 내 삶의 무게 역시 조금도 담기지 않은 그런 감정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말은 곧 삶입니다. 말이 가벼운 건 삶이 가벼운 겁니다. 말을 쉽게 내뱉고는 금방 무시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가벼운 사람이지요? 말이 가벼운 만큼 인격도 가볍고 삶도 가볍습니다.

요즘은 “주님 사랑해요” 하는 노래가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저는 그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좀 민망합니다. 경성도라 그런지 구시대라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부모님 세대, 또 그 이전 사람들은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솔직하지 못하거나 화끈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사신 건 아니겠지요. 사랑, 사랑 말이 온 세상을 뒤덮은 지금 그 때보다 사랑이 많아졌을까? 글썄요.

고백하는 교회

오늘로 우리 교회가 열세 살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십 년 만에 수백 명이 되기도 하던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소수정예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죽을 건 없습니다. 참 고백, 곧 우리 대표인 베드로가 주께 드린 이 세 가지 고백

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런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수천, 수만이 모여도 이 고백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시작입니다. 내 죄가 너무 큰데, 내 코가 석 잔데, 남 살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잘난 마음, 남에게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그런 사람은 번 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교회는 더러운 죄인들이 나와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고 같이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서로 위로와 사랑을 주고받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또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설교로 성경공부로 성경 묵상으로 암송으로 문제풀이로 말씀을 배워 믿음을 기릅니다. 그렇게 배운 말씀을 삶에서 익힙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판단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의 무게를 늘여가고 그럼으로써 내 인격을 조금씩 바꾸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재미가 쏠쏠한 곳이지요. 노는 것도 그렇지만 공부도 같이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의 사랑을 느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감히 못하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싹터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주님이 맡기신 사명도 느껴집니다. 대표인 베드로한테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갖가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 사는 모든 자리에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주님 사랑해요 하는 고백이겠지요.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고백을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 거듭함으로써 교회다운 교회, 참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권수경 목사)